

노화의 공포와 공생 지향의 상상력*

-구비설화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436-11유형)를 중심으로-

최기숙**

〈차례〉

1. 노화의 공포와 위기의식에 대한 설화적 상상
2. '노화'와 '노인'에 대한 시선 차이로 본 하위 유형
3. 노인의 사회적 생존과 공생 지향의 모색
 - 3.1. 문제형: 경험과 지혜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설득과 승인
 - 3.2. 지계형: 노화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과 타자화된 노인의 재성찰
 - 3.3. 자애형: 자애의 힘, 가족 관계의 개선에 대한 희망과 기대
 - 3.4. 자립형: 노인의 자립성, 가족장 바깥의 '돌봄'에 대한 요구
4. 노인의 문화적 위치와 사회적 기대
 - 4.1. 무성화된 젠더와 노인의 존재 증명
 - 4.2. 비극적 결말과 묵음 처리된 노인의 음성
5.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한국구비문학대계』의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436-11)' 유형을 대상으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노인의 공포와 위기의식이 어떻게 이야기 형식으로 재현되어 공감대를 형성했는지, 그리고 노인 스스로 자신의 사회적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어떠한 설득의 방법을 모색했는지를 분석했다. 선행 연구에서 해당 유형의 하위 범주는 '문제형'과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61-A00003).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HK교수

‘지계형’으로 분류되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부모의 자애에 감동한 아들이 불효를 거두는 ‘자애형’과 노인 부모의 사회적 독립을 강조한 ‘자립형’을 포함한 네 가지 범주로 유형화하여, 노인의 사회적 생존을 위한 설득의 방법과 공생 지향의 성찰적 상상력을 분석했다.

‘문제형’과 ‘자립형’이 노인의 쓸모와 능력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격 기준을 제시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한 것이라면, ‘지계형’은 ‘쓸모’라는 가치 기준을 넘어선 성찰적 지향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자애형’은 정서적 감응을 인간적 삶의 가능성으로 상정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네 가지 대응 방식은 노인과 노화를 바라보는 사회 구성원의 공포와 불안을 반영하지만, 가장 큰 양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형’이라는 것은 지혜와 경험, 지식 등 노인의 ‘쓸모’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노인의 문화적 위치가 확보되는 과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우세하게 작동했음을 의미한다. 설화 구연자의 대부분이 노인층(60~97세, 64%)인 것을 고려하면, 이는 노인 자신이 사회에 쓸모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다는 사회적 인정 욕구를 표출한 결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언제나 사회적 가치를 입증해야만 사회적 존재로서의 문화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생존의 스트레스가 반영되어 있다.

‘지계형’에는 노년층 부모가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효를 기대하기보다는 자신들을 보편적인 인간 존재로 바라보고 존중해주기를 기대하는 심리적 요구가 투영되어 있었다. 이 설화 유형은 ‘장유유서’나 ‘효’라는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누구나 늙는다는 생물학적 자연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공생’과 ‘돌봄’의 문화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담고 있었다.

고려장이 폐기되는 맥락에 대한 서사적 상상력은 자녀의 부모에 대한 효도라는 윤리적이고 이념적인 차원을 강조하기보다는, 노인(가족)과 공생해야 하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지점을 모색하고, 인간은 언젠가 모두 노인이 된다는 자기성찰성의 문제를 형성했다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1. 노화의 공포와 위기의식에 대한 설화적 상상

이 논문은 노인의 ‘고려장’을 강요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자녀 세대의 불효로’, 고려장의 위기에 처한 부모가 결국 ‘노인의 사회적 쓸모를 입증함으로써/자녀가 자신의 불효를 반성함으로써’, 애초의 의도와 달리 부모를 고려장 지내지 않게 된 사연을 다룬 구비설화 유형,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436-11)’에 대한 분석을 다룬다. 해당 유형에서 노화에 대한 공포와 위기의식이 어떻게 이야기 형식으로 재현되어 공감대를 형성했는지를 살피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인간으로서 거부할 수 없는 ‘나이들기’를 바라보는 설화 향유층의 시선을 살펴보고, 해당 설화 유형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노화의 공포를 어떻게 해소하려 했으며, 노인의 사회적 쓸모를 입증하기 위해 어떠한 사회적 설득력을 마련하고자 모색했는지를 향유층의 상상력이라는 차원에서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의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성찰해야 할 ‘노화’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태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담론화의 기초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그간 해당 설화에 대한 연구의 초점은 ‘고려장’이라는 화소 자체가 반인륜적이고, 이야기의 결말도 고려장을 폐지하는 쪽으로 정리된다는 점에서, 주로 주제 해석적 차원의 ‘효 사상’에 집중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고려장 설화’의 하위 유형에 대한 세밀한 분석보다는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 차원에서 수행됨으로써,¹⁾ 전통적으로 한국에는 ‘고려장’이 없었을 뿐더러,²⁾ 효사상이 관철되어 왔다는 미풍양속을 확인하는 차

1) 해당 유형의 설화에 대한 대표적 연구로는 이수자, 『高麗葬설화의 형성과 의미』(『국어국문학』 98집, 국어국문학회, 1987)를 참조.

2) 손진태는 ‘우리 조선민족의 역사가 시작된 뒤로부터 기로(棄老)의 풍습이 없었던 것은 의심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으며(『한국민족설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79, 174쪽), 지교헌도 고려장 풍습은 ‘한민족의 어떤 史書나 기록이나 고고학적 유물로도 입증할 수 없는 근거없는 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한민족의 정신사

원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고려장 설화가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라는 윤리적 차원을 강조하기에 앞서 ‘늬움의 처우’에 대한 사회적 시선의 문제점을 포착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노인의 처우는 노인의 사회적 위상이나 존재 인식과 연계되며, ‘고려장’은 노인의 사회적 무용성, 무가치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반영하며, 이것의 폐지를 이끌어 내는 서사화 과정은 노인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재합의를 도출해 내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노인의 위기 문제를 특정한 연령에 한정된 것으로서가 아니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노화의 보편적 문제로 재인식하는 과정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간 구비설화 연구에서 노인이 등장하는 설화에 대한 연구의 초점은 가족이나 효 사상에 집중되어 왔다.³⁾ 이 연구는 이러한 주제적 범주를 넘어서, 노인의 삶과 노화의 문제를 보편적인 인간 문제로 조명하려는 해석학적 전환을 시도한다. 그리고 한국의 구비설화에 이미 이러한 문제의식이 제기되었고, 설화적 상상적이라는 공감적 형식을 통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온 전통이 존재했음을 해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고려장 설화에 대한 선행 연구의 관점, 즉 효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미풍양속의 차원에서 강

적 기초』, 정신문화연구원, 1988, 157쪽). 이우식은 ‘고려장의 기록이 문헌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1926년에 沈宜麟이 엮어 漢城圖書에서 펴낸 조선동화대집에서 부터’라고 주장했으며 이 동화집 속에 ‘고려장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일제식 민지정책으로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풍속을 말살하고 우리가 얼마 전까지 야만족이었음을 은연중에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고려장 설화에 대하여』, 『얼과 문화』 18호, 우리문화연구원, 1990, 25쪽). 김민한(『高麗葬說話의 虛構性에 關한 研究』, 『한국사상과 문화』 5집, 한국사상문화학회, 1999, 142쪽)과 이수자(1999)도 고려장제도는 허구적인 것임을 강조했다.

- 3) 구비설화의 효 사상에 대한 선행 연구에 대해서는 강진옥, 『효자호랑이 설화에 나타나는 효 관념』(『민속연구』 1집,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1991); 최기숙, 『‘효/불효’ 설화에 나타난 가족 관계의 문학적 상상과 문화 문법에 관한 비판적 독해: 불효를 이용해 효도하게 하기(431-1)’ 유형을 중심으로』(『구비문학연구』 31집, 한국구비문학회, 2010)의 1장을 참조.

조하는 윤리적 차원에서 나아가, ‘노화’와 ‘노인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구비설화 향유층의 인식을 분석하고, 노인과 그 삶을 바라보는 현대적 시선에 대한 성찰적이고 비판적 인식의 지점을 재규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화 텍스트의 유형을 재범주화하고, 노인의 문화적 위치와 사회적 기대에 대한 문학적/문화적 분석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⁴⁾

2. ‘노화’와 ‘노인’에 대한 시선 차이로 본 하위 유형

‘부/모’를 고려장 지내는 자녀의 이야기가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실린 사례는 해당 자료집에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436-11)’라는 표제로 분류된 38편이다.⁵⁾ 이 유형의 핵심 구조는 고려장을 ‘해야 했지만/하려 했지만’, ‘폐기할 수 있었다/폐기해야만 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선행 연구의 하위분류에 따르면 ‘문제형’은 ‘/’ 왼쪽에, ‘지계형’은 오른쪽에 정확히 상응한다.⁶⁾ 즉, ‘문제형’에서는 자식 세대가 ‘법(나라, 왕)’에 따라 부/모의 ‘고려장’을 해야 했지만,⁷⁾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부/모’가 해결한 보상으로 고려장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었고, 이것이 실행된다는 서사적 흐름을

4) 분석 대상은 『한국구비문학대계』이다. 이야기 각편을 소개할 때 ‘;’ 왼쪽의 숫자는 해당 권호를 지시하며, 오른쪽 숫자는 이야기가 실린 첫 장의 쪽수이다. 이야기를 직접 인용할 경우 ‘;’ 오른쪽 숫자는 인용 시작 쪽수이다.

5) 38편의 해당 유형 이외에 ㉠<1-9:224, 고려장[효부와 불효자]>, ㉢<5-7:36, 불효 아비에게 불효 자식 난다>, ㉣<7-18:544, 고려장 없앤 강감찬> 등 3편을 더 찾을 수 있었는데, 이들은 이야기의 완결성이라는 차원에서 해당 유형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는 지계형에 속하나 결말이 불확실하며, ㉠은 어머니가 원인이 되어 자식이 죽자, 어머니를 고려장하여 벼락 맞아 죽는다는 것이며, ㉣는 강감찬이 고려장을 폐지했다는 정보가 강조되어 서사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436-11 유형’으로 분류된 38편의 설화 텍스트를 대상으로 삼았다.

6) ‘문제형’과 ‘지계형’의 분류에 관해서는 이수자(1987), 131-132쪽을 참조.

7) ㉠ ‘그런디 그때는 나라에서 영이 내려가지고 고려장을 못하게 해.’(여기서 ‘못하게 해’는 ‘하게 한다’는 내용을 잘못 구술한 것이다)(6-3:450); ㉢ ‘60이 됐어. 그 인자 만약에 춘추 넘으면 법을 어긴다고 큰 벌을 짓는 판인디’(6-4:266) 등.

취한다. 반면, ‘지계형’에서는 불효한 자식이 부모를 고려장하기 위해 지계에 업고 가 버리려 했지만, 부모에게는 손자이고 자신에게는 아들인 3세대가 훗날 부모를 버릴 때 사용하겠다고 지계를 도로 가져가자고 말한다. 그러자 2세대는 부/모를 도로 업고 내려옴으로써 고려장이 폐기되었다는 서사적 흐름을 취하고 있다.

‘문제형’과 ‘지계형’은 ‘노인’과 ‘노화’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에 대한 두 가지 분석과 대처를 함축한다. 전자가 노인을 ‘불필요한 존재’로 전제하면서, 쓸모없는 존재에 대한 폐기처분을 ‘자연화’⁸⁾하는 문화 논리를 반영한다면, 후자는 노인 봉양에 대한 자녀 세대의 피로도를 전제하면서,⁹⁾ 자신이 ‘부모에게 하는 태도’가 곧 향후에 자신의 자녀가 ‘노후의 자신’에게 보일 태도의 등가물임을 시사한다.

이 두 유형은 모두 노인이 타자화 될 때에 당면하게 되는 존재의 위기를 함축한다는 점에서 노인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노인은 사회로부터 불필요한 존재로 간주되어 버림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살해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해당 유형에는 노화에 대한 심리적 공포가 투영되어 있으며, ‘고려장’이라는 자극적인 소재에 대처하는 상상적 담론화를 시도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적 가치와 공생의 논리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고려장이 폐기되는 사회적 동의의 체계를 확정했다.

그런데, 총 38편의 설화 중에서 ‘문제형’에 속하는 것은 22편이고, ‘지계형’에는 11편이 해당된다. 5편의 설화가 해당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해당 유형에 대한 선행 연구의 하위분류가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해당 설화를 노화와 노인에 대한 시선 차이에 따

8) Barthes, Roland의 용어이다(『신화론』, 정현 역, 현대미학사, 1995).

9) 이수자는 고려장 설화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늙은 부모에 대해 자식이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상반된 본능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논자는 ‘棄老의 감정’을 결혼하여 자기의 자식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감정으로 해석했다(1987, 156쪽).

라 분류할 경우, 각 하위 범주의 명명법을 달리 해야 할 필요도 발생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의 유형 분류가 갖는 장점과 효율성을 인정하고, 이에 기초해 성립한 연구사적 궤적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명명법을 차용하되,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범주에 대해서만 새로 명명하고자 한다.

기존의 유형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총 5편의 텍스트인데, 이 중의 3편은 지계에 업힌 부모가 자식이 편히 돌아가도록 길을 표시하고, 이를 알게 된 자식이 자애에 감동하여 고려장을 포기한다는 점에서 ‘자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¹⁰⁾ 부모를 지계에 업고 가서 버리는 과정은 동일하지만, 고려장을 포기하는 계기에 ‘자애’의 요소가 강조된다는 점에서 ‘지계형’과는 별도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¹¹⁾ 다른 2편은 자식에게 버려진 부모가 스스로 살 길을 찾는다라는 점에서 ‘자립형’으로 명명한다.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해당 설화를 재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436-11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								
유형	번호	대계 번호	시작 쪽수	각편 제목	제보자 정보			
					성명	성별	나이	지역
문제형	1 ²⁾	1-7	540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	신석하	남	46	경기 강화
	2	4-1	397	고려장이 폐지된 유래	이우영	남	53	충남 당진
	3	4-4	744	고려장 없앤 유래	최종목	남	60	충남 보령
	4	4-5	194	고려장 없앤 유래	박용애	여	66	충남 부여
	5	5-2	586	폐지된 고려장	박권제	남	63	전북 완주
	6	5-5	126	고려장이 폐지된 사연	이성기	남	83	전북 정주
	7	5-7	38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조찬운	남	67	전북 정읍
	8	6-3	450	고려장이 없어진 이야기 (1)	신계우	남	45	전남 고흥

10) 이 중에서 ㉘은 어머니가 자애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효를 고치지 않는 아들이 등장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이 논문의 3장 3절에서 논한다.

11) 이 이야기는 일단 부모를 업고 산으로 갔다는 점에서는 ‘지계형’의 전반부와 유사하지만, 고려장을 포기하는 동기가 3세대가 2세대를 고려장하기 위해 지계를 도로 가져가겠다는 발언으로 유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애형’으로 따로 분류했다. 이는 ‘고려장을 포기’하게 만든 맥락적 요인이 유형 분류의 관건이 된다는 선행 연구의 판단을 존중한 결과이기도 하다.

	9	6-4	266	고려장	이승립	남	78	전남 승주
	10	6-4	539	고려장 법 파기하게 한 효자	고광옥	남	81	전남 승주
	11	6-4	846	충으로 고려장 위기 넘기게 한 효자	백봉구	남	84	전남 승주
	12	6-8	51	고려장이 없어진 이유	차상준	남	79	전남 장성
	13	7-9	1092	인간 칠십 고려장	박봉금	여	51	경북 안동
	14	7-10	585	고래장이 중단된 내력 (2)	홍성수	남	47	경북 봉화
	15	7-13	190	고려장 없앤 이인 어머니	진능선	여	97	대구 동구
	16	7-15	171	고려장을 없앤 이야기	서필금	여	74	경북 구미
	17	7-16	585	고려장을 없앤 이인 아버지	곽형규	남	67	경북 선산
	18	7-17	103	고려장을 없애게 된 내력	신성균	남	74	경북 예천
	19	7-18	545	고래장이 폐지된 유래	이수일	남	73	경북 예천
	20	8-8	599	고려장 없앤 연유	손쾌순	여	50	경남 밀양
지계형	21	8-14	483	고려장 (1)	문영자	여	38	경남 하동
	22	8-14	485	고려장 (2)	문영자	여	38	경남 하동
	23	8-9	350	고려장	구점선	여	55	경남 김해
	24	2-6	203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	한재순	남	83	강원 횡성
	25	1-5	302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장대훈	남	60	경기 화성
	26	4-4	344	고려장의 유래	고정숙	여	60	충남 보령
	27	6-3	452	고려장 없어진 이야기 (2)	신관휴	남	71	전남 고흥
	28	7-4	144	불효아비를 깨우친 아들	이연이	여	62	경북 성주
	29	7-4	255	아버지를 저다 버린 아들	현갑진	남	76	경북 성주
	30	7-10	583	고래장이 중단된 내력	정일수	남	54	경북 봉화
	31	8-2	481	그 아버지에 그 아들(고려장에 얽힌 불효)	이극수	남	74	경남 거제
	32	8-12	475	손자 덕에 고려장 면한 사람	정분기	여	76	경남 울주
자애형	33	9-1	194	고려장	허군이	여	75	제주 북제주
	34	6-11	287	고려장이 없어진 이유	임홍순	남	48	전남 화순
	35	8-13	314	부도의 사랑은 끝이 없다	전재임	남	60	경남 울주
자립형	36	6-3	47	고려장 이야기	박봉천	남	50	전남 고흥
	37	8-3	318	불효자와 고려장	성재희	여	66	경남 진양
	38	8-3	328	불효자와 불효부	성막이	여	69	경남 진양

전체적으로 4가지 하위 유형으로 세분되는 해당 설화 유형은 ‘노인의 생명’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전적으로 ‘타자’(국가/사회/가족)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권의 논리’와 대립한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자신의 위기의식에 대처하지 못할뿐더러,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

12) 이 번호는 이 글이 분석 대상으로 삼은 해당 유형의 설화 총 38편에 대한 일련번호다. 이하 본문에서 설화 각편을 지시할 때는 원문자 번호로 표시한다.

적 사태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노인의 무력한 처지’를 대변하고 있다. 고려장의 폐지를 다룬 해당 유형의 이야기들은 노인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폭력성에 대한 일종의 저항 담론으로서, 노화와 노인에 대한 공포의 시선을 반영한다. 그리고 해당 설화는 이 문제를 노인이라는 특정 대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보편적인 인간 문제로 조명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문학적 성찰의 지점을 형성하고 있다.

3. 노인의 사회적 생존과 공생 지향의 모색

설화 연구자들이 해당 유형에 붙인 표제는 ‘고려장이 없어져서 다행’이라는 안도의 시선을 담고 있지만, 이미 이 설화에는 자녀 세대가 ‘친족 살해’를 시도했다는 반인륜적 사태, 또는 ‘노인은 고려장을 지내야 한다’는 사회적 시선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 지점을 내포한다. 대개의 설화에서 고려장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돌봄을 받지 못한 노인이 사망하거나, 자살하여 파국을 맞이하기도 한다.¹³⁾ 그러나 대체로 각 설화에서는 고려장을 철회하는 경위가 설정되는데, 바로 이러한 과정이 ‘노인에 대한 사회적 처우’의 합리적 시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 장에서는 해당 설화 유형의 각 하위 범주에서 노인의 사회적 생존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에 관해, 고려장이 폐기되는 방식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3.1. 문제형: 경험과 지혜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설득과 승인

‘문제형’의 경우, 선행 연구의 지적대로 고려장은 차마 할 수 없는 것인

13) 이에 관해서는 이 논문의 4장 2절에서 논한다.

데 국법(나라, 왕)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그 자손이 수행해야 하는 것이며, 자손은 차마 이를 지킬 수 없어 법망을 피해 부/모를 산(굴)에 숨겨두고 생명을 보존하게 했다는 이야기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다 국가가 해결해야 할 난제에 직면해 부/모의 조언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고려장의 폐지를 주장했다는 점이다.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인의 모습은 분명 ‘문제해결자’의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적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 노인이 보여준 지혜와 경험이라는 가치는 노인을 고려장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¹⁴⁾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려장이 분명한 반인륜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어쩔 수 없는 국가(법)의 명령이어서 자식 세대가 ‘할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음이 언급된 점이다. 그러나 자식으로서 ‘차마 할 수 없어서’ 몰래 부/모를 산(굴)에 숨겨두고 밥을 드리는 ‘효’를 행했음을 강조했다.¹⁵⁾

아들이 부/모에게서 문제 해결의 답안을 얻는 경로는 세 가지이다. 첫째, 아들이 부/모에게 직접 문제를 상의하는 것,¹⁶⁾ 둘째, 부모-자식간의 자연스러운 대화 과정 중에서 대답을 얻는 것,¹⁷⁾ 셋째, 부모가 아들의 근심 띤 표정이나 태도를 보고 사정을 알게 되어 답을 주는 경우이다.¹⁸⁾

첫 번째 경우에는 아들 세대가 부모의 문제 해결력을 신뢰했다는 점에

14) 가족 내 노인의 위치 및 노년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Minois, Georges, 『노년의 역사』(박규현·김소라 옮김, 아모르문디, 2010); Thane, Pat, 『노년의 역사』(안병직 옮김, 글항아리, 2012), 1장을 참조.

15) ‘할 수 없이’, ‘차마 할 수 없어’, ‘효성스럽다’ 등의 어휘는 설화 각 편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된다. ‘우리가 자식된 임무(도리)로써 부모로 저다가 고례장을 해 놓고, 우리가 쓰신 방에 우리가 잠을 자고 밥을 묵고 있겠노 싶어 걱정이라.’는 자식의 걱정을 드러낸 경우도 있다(20).

16) ①, ③, ④, ⑥, ⑫, ⑭, ⑮, ⑯, ⑰, ⑱, ⑳ 등.

17) ⑧, ⑩, ⑬, ⑰, ⑱, ㉑ 등. ⑬에서는 어머니가 먼저 아들이 접할 문제와 답을 알려준다.

18) ㉒(여기서는 온 국민이 노심초사하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본 할머니가 답안을 제안한다), ⑤, ⑦, ⑪ 등.

서, 또 부모를 중요한 의논 상대로 상정했다는 점에서, 부모에 대한 존중의 시선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모-자식 간에 규범적인 가족 관계가 유지된 것이다.

- ④ ‘차암 마이 많은 노인네래야 그걸 알겠어. 그래서 인제 그 아들이 가 마안히 생각허닝께, 즈 어머니한테 가 물어봤어.’ (….) “우리 어머니가 그 나이 많은, 많이 잡순 으런이가 그걸 알으셔서 지가 했노라”구. 그 래닝께는 그 사람을 아주 효자상 주구 잘 살었다야. (4-5:195)
- ⑥ 그러서 ‘나이 많이 잡습고 그 경험을 많이 얻은 양반이 혹 알랑가 모르겠다.’ 저그 아버지한테 땅굴 속을 들어갔지. (5-5:127)

특히 자식이 정승이라는 높은 관직에 오른 경우, 몰래 숨겨둔 아버지를 문안하는 처신이 강조되었으며, 아버지 또한 아들에게 명령을 행사하는 권위적 모습을 유지했다.¹⁹⁾ 자식 스스로 부/모의 문제해결력을 신뢰했으며, 이를 지혜와 경험의 차원에서 인정했다. 그리고 이를 사회적으로 설득함으로써 고려장 제도가 폐지되게 하였다.

두 번째 경우는 부모-자식 간에 자연스러운 소통 관계가 상정되어 있었다. 문제해결력은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확보되었다. 여기에는 가족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족과 사회의 공생에 모두 유익하다는 판단이 개입되었다. 특히 아버지를 업고 가다가 대화를 나누며 우연히 문제 해결을 얻게 된 이야기(㉒)에서는 가족 간의 소통이 가족의 공생은 물론 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발상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는 자식은 부모를 의논 상대로 여기지 않았지만 부모는 여전히 아들의 안위를 근심하며 의논 상대로 자처한 경우이다. 여기에는 부모-자식간의 존중과 이해 정도가 불균등하게 상정되었고, 의사소통의 폐쇄성이라는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었다.

19) ㉑ “꼭 너 내시끼는 대로 해라.”(7-16:587)

고려장의 폐지는 부/모가 국가의 당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가능해지는데, 여기서 언급된 노인의 가치에 대한 구술 차원의 진술은 아래와 같다.

<지혜>

- ① “그지만 육십이 넘어도 사람이 쓸모가 있구나! 그 아예 고래장을 지내지 말기로 하자.” (...) “그러기 때문에 ‘늙으면 지혜가 있기 때문에 늙은 양반들도 있어야 한다.’ 이거요.” (1-7:542)
- ② 그래서 그 때부터 어 역시 경험이 많구 지혜가 많은 예, 노인이 재야만 되겠다 이래가지구 고려장을 없애구 생매장을 앓구 그 때부터 고려장이라는 거는 해방이 되구 폐지가 됐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4-1:398)
- ⑤ “참, 한국에도 인재가 있구나!” 이때 임금이 이 얘기를 알고 참 이것 이 다 노인 지혜다 말여. 노인들을 천대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고려때 고려장을 폐했다는 거여. (5-2:587)
- ⑪ 이런 소국에서 이런 이런 현철현 인물이 난 것이란 것이 참 어려운 일 이라고 힘서 (...) 우리나라 삼천리 강산에 이런 특수한 인물이 나고 있는디 큰 상을 주어야겠거든. (6-4:849)

<경험>

- ⑥ 이렇게 나이 많이 잡순 경험 있는 양반들이 다들 큰 양반들 기시는데 (5-5:128)
- ⑱ 대국서 인재 한국서 인재가 없으며는 그걸 한국을 칠라고 했던 것이 그래 인재가 있으이 (...) 나 많이(많은이)가 경험이 있고 젊은이는 경험이 없다. (7-17:104)
- ⑳ 아버지가 워낙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아시기는 거지요. (8-14:486)

<지식>

- ⑭ “그래 우리 나라를 구출한 사람이 고래장 속에 들었던 그 노인이 우리나라를 구했다 해주고, 그 때부터 고래장을 폐지를 했어요. 나이가 많에도 쓸모가 있다. 그래주고 요새도 왜 간혹 보만 동네도 그렇지마는, 나이 많은 분들한테 전부 묻고, 이 뭐 자문위원 뭐이 하는 이 유가 땡 거게 있지 싶어요. 나이 많에도 절대 왜 거 우리 육팔 년도 공비 나올 때도 예비군 자문위원이라고 있어요. 이 나이 많은 분들, 육칠십 되는 분들한테 무슨 어려움(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걸 인제 물어가주고 의논하게 돼 있어요. 그 요새도 인제 정책상 그래가주고 나라를 구했다 그래.” (7-10:587)
- ⑮ 그 부모를 그래 나 많은 사람이 살아야 그걸 안다이캐민서, 그래 고래장도 안 하더랍니다. (7-15:172)
- ⑯ 인간 칠십 되도 그런기 그렇기 잘 아는데 이래 뇌났단 우리나라 망한다. (7-16:589)

<인재>

- ⑦ 한국서 그 사람이 있구나. 인재가 있구나.” (5-7:40)
- ⑧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거든 (6-3:450)
- ⑩ 그래서 나 많은 사람을 숭배해준 것이 그래서 숭배한 것이라고 알아서. 그러나 나이는 나보담 작아도 나보다 더 알면 숭배 그 작은 사람이 나보다 더 아는 사람이면 숭배해야 한다고 (6-4:541)
- ⑰ ‘햇, 조선 소국에도 이런 이인이 있다.’고 말이지. (7-16:588)
- ⑱ “한국도 인재가 있구나.” (7-18:546)

구술 차원에서 거론된 노인의 가치는 지혜(①, ②, ⑤, ⑪), 경험(②, ⑥, ⑱), 지식(⑭, ⑮, ⑯) 등이며, 노인이 인재(⑤, ⑦, ⑧, ⑩, ⑰, ⑲)라고 판단한 경우이다.²⁰⁾ ⑫의 경우에는 구술자(79세, 남)가 고려장 대상자와 동일시하며 자조적인 논평을 개입시킨 점이 주목할 만하다. 노

인을 방치하는 제도에 반감을 가지면서도 당사자가 자신인 만큼, 직접적인 비판을 하는 대신 자조의 방식으로 비난을 간접화시켰다. 특히, ⑩에서는 노인의 경험은 지식 차원의 가치를 갖는다는 판단을 보여주었다. 나이가 적더라도 ‘나보다 더 아는 사람’이라면 숭배해야 한다는 구술자의 논리는 ‘존경’의 기준이 아니가 아니라 ‘지식’의 유무라는 판단을 함축하고 있었다.

⑪의 경우에는 70세의 노인이지만 문제해결력이 있으므로, 노인을 고려장하는 제도는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었다. 고려장이 유지될 경우 노인의 사회적 역량과 생산성을 사회가 공유할 수 없으므로, 결국 ‘나라가 망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했다.

일부 이야기에서는 부/모가 아들의 귀가를 염려해 길표시를 하는 모정/부정을 드러냄으로써, 부모된 도리와 자애를 강조했다.²¹⁾ 또한 소(말/새)의 새끼와 에미를 가리는 문제²²⁾에서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무한한 애정과 자식의 이기적 처신을 대비시킴으로써, 자식의 불효와 반인륜성을 문제적으로 부각시켰다.²³⁾

- ⑪ “(...) 먹다가서 요리 밀어주는 놈은, 밀어주고 나슨 놈은 에미고 밀어 줘서 받아 먹는 놈은 새끼다. 그렇다 말여. 그런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끼 사랑은 마찬가지로. 근게 이놈이 먹다가는 밀어줄트니께 문야

20) 김양진은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노인 이미지를 분석하고 ‘정보제공자’와 ‘조력자’로서의 노인 이미지가 형성되었음을 해명한 바 있다(『한국고대설화 속의 노인 이미지 특성 연구』, 『새얼어문논집』 17집, 새얼어문학회, 2005, 206-209쪽; 213-225쪽). 이 두 가지 요소는 본 논문에서 다루는 ‘노인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대적 사례에 상응한다.

21) ④(모정); ⑨(부정) 등.

22) ⑥, ⑪, ⑫(소), ⑧, ⑬, ⑭, ⑮, ⑯, ⑰(말), ⑱(새).

23) ⑫에서는 자식에게 양보하는 게 어미라는 논리 대신, 둘 다 굶기면 먼저 ‘자빠진 놈이 새끼’라는 논리를 제안한다. “같은 값이면 젊은 사람하고 늙은 사람하고 의견을 낼 것 같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 배고픈 것을 젊은사람이 못 참어.” (52쪽)

나가는 놈이 에미고 안 밀어 주고 받아먹는 놈이 새끼일테니까 그대로 상고를 해라.” (6-4848)

⑪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데 비해, 자식은 부모에 대해 이기적으로 처신하는 것이 생명의 보편적인 이치라는 시선을 보여주었다. 이 경우에도 고려장의 위기에 처한 노인 당사자의 음성은 좀처럼 표현되지 않았다.²⁴⁾

‘문제형’ 설화 유형은 노인 부모의 안위가 전적으로 자식 세대에 의존해 있음을 보여주었다. 가정 내에서 노인의 위치는 불안했지만, 법은 이에 대한 아무런 보호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식이 노령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노인의 위기를 가중시켰다.²⁵⁾ 노인의 사회적 생존은 오직 자신의 능력과 가치(지혜, 경험, 지식)를 입증할 경우에만 보장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장의 폐지를 법으로 결정한 것은 노인의 사회적 가치, 문화적 생산성에 대한 범국가적 승인을 뜻한다.

그러나 해당 유형은 노인의 사회적 생존에 대한 철저한 보장을 마련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이는 해당 유형의 초점이 ‘노인의 사회적 존재 증명’에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유형은 노인이 자신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성과 교섭성이라는 ‘소통성’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발상을 보여주었다.

24) ‘문제형’에서 예외적인 결말 처리를 갖는 이야기 ③과 ⑩에 대해서는 이 논문의 3장 1)절에서 다루었다.

25) ‘그 질로 그래 이 고래장이 없었다마(없어졌다면서)? 그런 자식이 있기 때문에.’ (7-9:1096)라는 언급은 노인의 안위가 전적으로 자식의 효심에 의존해 있음을 보여준다.

3.2. 지계형: 노화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 타자화된 노인에 대한 재성찰

‘지계형’의 경우,²⁶⁾ 고려장은 대체로 2세대의 자발적 의사로 수행되었다.²⁷⁾ 부/모를 지계(들것)에 지고 간다는 설정은 곧 부/모가 이미 운신이 어려운 노화 수준에 이르렀음을 뜻한다. 그런데 고려장을 하러 가는 아들에게는 죄의식이나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와 더불어 주목할 것은 고려장의 대상자인 부/모가 장차 자신에게 닥칠 미래를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신의 친자에 의해 ‘존속유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지만,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이는 사실상의 ‘존속살해’를 의미했다. 운신이 어려운 노화 수준에 이른 부모의 생존권은 전적으로 자녀 세대에 의해 좌우되었다. ‘지계형’ 고려장 설화는 가정이나 가족이 결코 노인 세대에게 안전지대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결국 부/모를 고려장 지내려 했던 아들 세대는 동행한 자신의 아들의 발언을 듣고 고려장을 포기한다. 동행한 아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관찰하고, 이를 미래에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세대는 3세대의 발언을 통해 비로소 ‘노화’가 1세대 부모가 당면한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곧 당면하게 될 보편적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다. 여기에는 노화를 ‘타자적 시선’으로서가 아니라 주체의 문제이자 자기화 과정으로 사유해야 한다는 성찰적 관점이 개입되었다.

26) 늙은 부모를 버리는 일이 고려장이라는 사회제도에 따라 성립한다는 발상은 인도,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한다(이정호, 『인도전래동화』 2, 웅진출판주식회사, 1986, 41-43쪽). 이수자는 ‘문제형’과 ‘지계형’에 나타난 한국적 변이 양상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고려장적 요소가 새롭게 첨가·부연되었다는 것과 모성지향성이 강조된 점이라고 했다(1987, 149-150쪽).

27) ㉔에서 화자는 ‘아, 고려장같은데 아니, 고려장도 안 하고 그냥 놔두고 오거든.’(2-6:204)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2세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 ㉕, ㉗, ㉘, ㉙, ㉚ 등. 특히 ㉘에서는 밥을 먹은 시아버지에게 반감을 가진 며느리가 남편에게 사실을 말하자 남편이 지계에 아버지를 지고 가는 것으로 이야기되었다. 이는 마음에 들지 않는 아버지의 생존권마저 아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판단을 보여주었다. 이와 달리 고려장을 일종의 따라야 할 풍습으로 전제한 경우도 있다(㉖, ㉗, ㉘, ㉙ 등).

제 3세대의 발화를 통해 고려장을 포기하는²⁸⁾ 2세대의 반응(발언과 행동)은 각 편에 따라 분열적으로 나타났다. 즉 후회와 반성, 깨달음을 보이기도 했지만,²⁹⁾ 아무런 감정 표현도 없이 부/모를 도로 모셔 가자고 제안하거나⁽²⁷⁾, 묻은 아버지를 도로 파내어⁽³³⁾, 고려장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아무런 발언도 없이 결과적으로 고려장을 하지 않았다는 화자의 정리로 마무리되기도 했다^(24, 25). 3세대의 발언을 듣고 당황하며 후회하거나,³⁰⁾ 단지 자식에게 같은 일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 고려장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³¹⁾

이는 자신의 처신에 대한 근원적 반성이 없이, 단지 나중에 자신이 고려장을 당하는 것이 싫어서 결단을 번복한 것이므로, 윤리적 반성이나 후회와는 무관한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애초에 마음먹은 대로 고려장을 할 수 없게 되자,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거나 분노하기도 했다.³²⁾

대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은 누구나 노인이 될 수 있다는 자각을 통해 노인을 버리는 풍습이 폐기되는 구조를 형성했다. 이는 고려장을 포기하

28) ㉘, ㉙ 등에서는 손자가 아버지에게 지계를 가져가자고 말하는 데서 종결되어 이야기 안에서 고려장 폐지가 명확히 언급되지는 않았다.

29) ㉚에서는 아들이 지계를 도로 가져가겠다고 하자 아버지가 ‘깨달아가주고 그래서 고래장 법이 없어졌’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이는 밝힐 필요조차 없는 ‘공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지만, 구술 시점으로부터 28년이 지난 지금에 이는 명백한 ‘공감’의 영역이라기보다는 해석해야 할 ‘공백’의 영역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30) ㉞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 기가 막혀 깜짝 놀락거든. (...)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구 내가 잘못했구나. 구만 두구 가자.” (4-4:344).

31) ㉟ ‘이 놈의 자식이 이 더러분 놈이 가마 생각하니, 저는 그래 죽기 싫어 안 되겠그당. [청중:그렇지](7-4:255); ‘가만히 생각하이하니까네 인자 지도 그래 가기 싫은기라. 그래 인자 아버지를 다부 지고 온다. 지고 떡 오이하네, 그래 인자 아아 때문에 몬 갔다 내비리고 그래 오지.’(8-12:475)

32) ㉜ ‘아 이거 봐라. “저 놈의 새끼 저지경 하니 우리도 늙으면 저 지경 해 밀어내버릴 테니 가 가지고 올라”고. 그만 갔다 혹 때려 집어 던져버리고 저희 어머닐 가서 업어 왔지. [조사자: 어린애도 이렇게 배울 점이 있지요?] 배울 점이 있지.’ (2-6:205)와 같은 데서는 어머니를 도로 업어가야 하는 아들의 불편한 심정이 드러나 있다.

는 ‘지계형’의 태도가 단순히 ‘효’라는 윤리적 맥락으로만 해명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2세대는 부/모를 고려장 지내려 한 자신의 부도덕함이나 반인륜성을 반성하고 효도를 결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3세대로부터 자신에게 가해질 불안하고 어두운 미래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고려장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윤리적 자각’이라는 도덕적 이해보다는 노인에 대한 타자적 시선을 주체화하는 ‘자기화’의 시선을 통해 고려장을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노화란 타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보편적인 문제이며, 곧 주체 자신의 문제라는 자각에 도달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사회적 유기는 곧 자멸의 길임을 깨달았던 것이다.

고려장이 없어지는 결말에 대해 ‘웃음’을 보인 화자와 청중의 태도(㉕, ㉖)는 고려장에 대한 거부와 비판의 시선을 전제로 하고 있다. 화자들은 고려장을 하려 한 아들 세대에 대한 반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폐기하게 한 손자를 지지함으로써, 이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당사자 노인이 자신을 둘러싸고 행해진 아들과 손자 세대의 ‘처우’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노인의 인권이나 사회적 처우가 전적으로 자녀 세대의 의사 결정에 좌우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야기 내부에서 노인 세대는 자신을 스스로 지킬 사회적 조건이나 규범으로부터 소외되었으며, 가족 이외에 자신을 보호해 줄 사회 집단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는 설화라는 장르의 속성상 복잡한 관계망을 지양하고 이야기의 핵심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물과 갈등을 배치한 결과이다.³³⁾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야기에서 몸이 불편한 노인 부모의 안위가 철저히 가족 구성원에게 위임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당 유형은 가정조차 노인에게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33) 설화의 장르적 특성에 관해서는 조희웅, 『설화학 강요』(새문사, 1989), Propp, V. Y, 『민담의 역사적 기원』(최애리 옮김, 문학과 지성사, 1990)을 참조.

써, 사적 공간에 대한 성찰적 재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환기했기 때문이다.³⁴⁾

3.3. 자애형: 자애의 힘, 가족 관계의 개선에 대한 희망과 기대

‘자애형’에 해당하는 유형은 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산에 고려장을 지내러 가는 동안, 어머니가 자식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나뭇가지로 길을 표시하자, 이를 안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이다(㉔).³⁵⁾ 이 유형에서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을 고려장하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식의 안위만을 염려했다. 이러한 어머니의 태도는 자식의 몰인정한 불효 행위와 대조를 이루면서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자애, 무조건적인 자식 사랑에 대한 감동의 감정을 환기시켰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아들로 하여금 불효를 중단하게 만들었다(㉔, ㉕). 감동의 정서가 행동 변화를 이끄는 힘(empowerment)으로 발휘된 것이다.

실제로 화자들은 어머니를 업고 고려장을 하려는 아들에 대한 어떠한 비난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머니의 무조건적 자애를 반복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불효에 대한 반감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그리고 이를 ‘새끼 잡아먹는 범은 없는’ ‘자연의 이치’이자 ‘천륜’으로 의미화했다.

34) 사적 공간에 대한 사회의 불간섭성이 오히려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성을 방관하고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발상에 대해서는 上野千鶴子(우에노 치즈코), 『プライバシ-의解體』, 『生き延びるために思想-ジェンダー平等の罫』(岩波書店, 2006)의 논의가 주목할 만하다.

35) ㉕는 어머니가 자식에게 돌아갈 길을 알려준다는 데서 마무리되었다. 화자는 어머니의 사랑을 강조하는 발언을 덧붙였다. 이러한 화소는 ‘문제형’의 일부(㉔)에서도 발견된다. 이 경우, 차마 부모를 고려장하라는 국법을 따를 수 없었던 아들의 효심과 아들의 무사 귀가를 근심해 길을 표시하는 부/모의 자애가 짝을 이루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구비설화에서 ‘모성’을 다룬 연구로는 서태수, 『자녀희생효 설화를 통해 본 효행주체의 의식』(『청람어문교육』 5집, 청람어문교육학회, 1991); 정경민, 『자녀희생효 설화에 나타난 ‘효’와 ‘모성’의 문제』(『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4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2)를 참조.

- ㉔ 해는 저물고 이 깊은 산골에 나를 여기다 놔 버리고, 니가 어디로 가 버리겠냐?” 이 말이여. “깊은 산속에 헤메다가 호랭이라도 먹여버리면 이거 큰일 안나겠냐. 그래서 느그 집을 빨리 찾아 갈 수 있도록 내가 길에다가 표시를 해 놨다.” 그 이후다시 즈그 어머니를 업고 왔다. 아하 부모란 것은 백년 아니라 이백년을 살아도 즈그 아들이 불효를 하던지, 효도를 하던지 기달리지 않아. 부모는 그렇게 항상 자녀 사랑 속에 평생을 보내. 그래서 우리 부모는 인자 나이 먹은 양반들 사랑은 젊은 시절 다 겪어 갖고 나이 먹어보면 알어. (6-11:288)
- ㉕ 그런데, 부모오 사랑이라 카는 것은 참 말할 수 없는, 그 죽으며도(죽으면서도) 자식을 생각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참 어는 부모 없이 다 이것을 갖다. …… 범이 참 암마(아무리) 무섭어도 지 새끼 안 자아 묵는다 카는 겁니다. 그래 부모가 그래 그런 사랑이라고 사랑에 대한 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8-13:315)
- ㉖ “가다가 길 잊어벌까(잃어 버릴까) 싶어서, 나가 오면서 솔잎을 뜯어서 뿌려놓고 왔다. 그러니 그 내가 뿌려놓은 솔잎을 찾아 가면서 가거라. 그러면 질이(길이) 훗갈리지(잊갈리지) 않고 집에가지 무난히 갈 수 있을 것이다.” (6-3:47)

그런데 ㉖의 경우는 어머니의 자애애도 불구하고 아들이 고려장을 폐기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외적이다. ㉖의 어머니는 자신을 땅에 내려놓은 아들에게 등에 돌이 있어 아프니 빼달라고 했다. 이때에도 어머니는 자신을 버린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머니의 등에 닿은 것은 돌이 아니라 금이었다. 아들은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돌아왔지만, 불효는 지속되었고, 어머니는 며느리의 효심으로 살아간다는 내용이다. 구술자는 금이 발견된 것이 며느리의 효성 덕분이라고 말했다.

㉖에서 아들의 마음을 되돌린 것은 ‘자애에 대한 감응’이 아니라 ‘금’이라는 경제적 요소였다. 이는 노인의 사회적 생존에 ‘경제적 요소’가 중요하다는 암시를 주었다. 비록 혈연 가족일지라도 노인의 인권을 보호받으

려면 경제적 요건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효’라는 대의적 명분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노인 부모의 생물학적 안위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다. 노인 부모가 아들이 아닌 ‘며느리의 효심’에 의해 보호받게 된 설정을 통해서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자녀세대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노인 세대의 사회적 처지를 반영하고 있었다.

구연자들은 부모를 내다버리려는 아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을 버리려는 아들마저도 염려하고 보살피는 모정을 강조했다. ㉔의 경우에는 집이 가난한데 노망든 어머니가 밥을 먹은 뒤에도 밥을 요구해서 곤란하다는 점을 드러내기도 했다.³⁶⁾ 여기서 구술자는 아들의 불효를 질타하기보다는 곤란한 아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즉, 이 이야기는 불효라는 비윤리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비판하기보다는 모성의 불변성을 강조함으로써 노화의 문제에 대한 페이스스의 감각을 견지했다. 또한 이들은 모정이란 비록 치매가 걸리더라도 퇴색하지 않는 영원한 힘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부모를 버리는 행위는 차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감정적으로 호소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돌봄과 공생의 논리를 생성해 내고자 했다

3.4. 자립형: 노인의 자립성, 가족장 바깥의 ‘돌봄’에 대한 요구

‘자립형’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유형 전체에서 단 두 편(㉗, ㉘)이다. 이들은 자식이 불효하여 부모를 고려장시키려 했고, 노인은 이를 위기로 인식하여 우연히/적극적으로 이를 모면하려 했다는 전개를 보였다. 노인이 고려장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문제 해결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며, 자녀 세대의 효심 때문도 아니었다. 노인 스스로 버려질 위기에서 벗어났다

36) ㉔ ‘노망을 험다고 똥을 싸갖고 먹고 백장(벽장)에다 걸고 정신이 통 그래서 밥을 금방 쥐도 또 달라고 달라고 해. 근데 하도 입은 많고 가난한디 살 수가 없어. 그분을 대접하다간……’(6-11:287)

는 점에서 이들은 ‘자립형’으로 범주화할 필요가 있다.³⁷⁾

㉞에서는 자식이 노모를 고려장하러 가면서 절 구경하러 간다고 속였다. 자식은 어머니가 혼자 있는 공간에 불을 질렀다. 어머니는 우연히 소나기가 내리자 화재를 피하러 고목나무 속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도둑이 숨겨 둔 임금의 홍패를 보게 된다. 서울로 간 어머니는 홍패를 찾는 왕에게 피를 써서 찾게 하고 그 보상으로 상을 받아 잘 살게 된다는 내용이다. ㉟는 며느리의 시어머니에 대한 불효담 형식이다. ㉞에서 어머니를 유기하고 방화한 이가 아들이라면, ㉟에서는 이 모든 일이 며느리의 지시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어머니는 우연한 행운과 지혜로 편안히 살게 된 이후에도, 아들에 대한 걱정을 떨치지 못한다. 이를 알게 된 임금이 아들을 데려오게 한다. 혼자 남은 며느리는 곤경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노모를 버리는 아들(㉞)과 며느리(㉟)는 분명한 불효자로 설정되었다. 고의로 노인을 버리기로 하고 노모를 속였을 뿐더러 방화 살해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노모는 사실상 죽음의 위기에 방치되지만, 소나기를 만나 목숨을 구하고 옥새를 얻어 보상받게 된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모가 스스로 자립하는 이야기이지만 ‘우연’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주체적 자립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약자에 대한 도덕적 보상을 기대하는 구비설화의 보편적인 논리를 반영하듯, 이 이야기에서의 우연성은 노모는 반드시 살아야 하고, 불효한 자식에 의해 희생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을 뒷받침하는 서사적 장치로 동원된 것이라 할 수 있다.

㉟의 경우에는 아들이 분명 아내가 제안한 모친살해에 동의하여 실질적인 살해를 도모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모는 끝까지 아들을 염려하여 동거를 원했다. 모정은 자신은 저버린 아들마저 감싸안는 선택을 했던 것이

37) 이 유형에 해당하는 설화의 편수가 적기 때문에, 『한국구비문학대계』 이외의 설화 채록집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통계에 근거한 양적 연구보다는 질적 연구방법론에 해당하는 해석학적 방법론을 존중하므로, 비록 텍스트의 수는 소수이지만, 그 의미 맥락과 상상력의 추이에 주목하기로 한다.

다. 그 과정에서 오직 며느리만이 가족 장에서 배제되었다. 이는 해당 설화의 향유층이 혈연 중심적 가족 이데올로기의 자장 안에서 상상력을 발휘했음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 ㉞은 가족을 떠나 혼자만의 행운과 능력으로 자립한 노인의 태도를 보여주었다. 노인이 잘 살게 된 결말에는 혈연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 전제되어 있지 않았다. 여기에는 미약하게나마 가족 바깥의 사회적 장에서 ‘돌봄’을 기대하는 노인의 심리가 투영되어 있었다. 비록 체계화된 차원의 사고는 아니지만, 여기에는 가족이라는 사적 공감에서 발생하는 폭력성에 대한 공포와 가족 장 바깥의 사회에 대한 돌봄의 기대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노인의 사회적 생존을 가능하게 한 계기에 ‘국가와의 접속’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은, 미약하게나마 국가라는 공적 기관이 위험에 처하고 버림받은 노인을 돌봐주기를 기대하는 심리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국가에 의한 정책적 ‘복지’ 개념은 관여되어 있지 않았지만, 나약하고 소외된 존재에 대한 공적인 관심과 배려에 대한 요구가 전제되어 있었다. 또한 친밀성에 근거한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적 친밀권의 폭력성을 견제할 국가적 차원의 개입에 대한 기대가 소재적 차원에서 (“홍패”), 그리고 서사적 차원에서 (“왕이 노인을 돌보아 줌”) 관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노인의 문화적 위치와 사회적 기대

‘고려장이 폐지된 유래’ 유형의 설화는 ‘노인을 버리는 풍습’이라는 가상의 소재를 통해 노화의 공포와 노인의 위기의식을 다루었다. 이야기의 흐름은 버려질 위기에 처한 노인이 어떻게 살아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이는 노인의 쓸모를 증명하거나, 노화의 문제를 타자가 아닌 자기의 문제로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노인과의 공생을 결정하는 사회적

설득의 구조를 취하고 있었다. 부분적으로는 노인 자신의 행운과 지혜로 문제를 극복하거나, 부모의 자애에 감동한 자녀 세대의 반성으로 고려장을 포기하는 흐름이 설정되었다. 여기에는 노인을 바라보는 특정한 사회적 시선이 전제되어 있었으며, ‘노인은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설화적 전제를 문제적으로 사유하려는 지점이 함축되어 있었다. 단적으로 말해 해당 유형에는 노인의 위기의식과 노화에 대한 공포의 시선이 투영되어 있었다.

이 설화 유형에는 언제든 위기에 처해질 수 있고, 자신의 생명권조차 타자에게 위임될 수 있는 노인의 문화적 위치에 대한 불안이 투영되어 있었다. 동시에 이를 문제화함으로써, 노인(가족)과 공생해야 하는 문화 논리를 구축하려 했던 향유층의 사회적 기대가 반영되어 있었다.

4.1. 무성화된 젠더와 노인의 존재 증명

해당 설화에서 고려장의 위기에 처한 당사자들은 대체로 ‘노인’으로 호명되었고, 가족 장 안에서 이야기가 진행될 경우 자녀에 의해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 호명되었지만, 이들 간에 ‘젠더적 인식’은 발견되지 않았다. 말하자면 해당 설화에서 노인은 ‘무성화’되어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가정 내의 정체성이나 역할, 또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보다는³⁸⁾ ‘늙어서’ 쓸모없이 되어 버린 사회적 존재라는 인식이 우세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³⁹⁾

38) 예컨대, ㉔, ㉕ 등에서는 고려장 대상 인물이 ‘어머니’로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자들은 이들이 보여준 변함 없는 자애를 ‘어머니’만의 것이 아닌 ‘부모’의 것으로 호명했다. 이 유형의 설화에서 ‘노인 부모’의 존재 의미는 ‘부’ 또는 ‘모’라는 성별 가치가 아니라 ‘노인’에 강조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9) 구비설화에는 ‘무성화 된 노인’의 이미지와 대조적으로 ‘성욕의 주체’가 된 노인의 이야기도 상당수 발견된다. 이에 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대 상	설화 텍스트	퍼센트
어머니	①, ③, ④, ⑧, ⑩, ⑫, ⑬, ⑮, ⑲, ⑳, ㉓, ㉕, ㉖, ㉗, ㉘, ㉙, ㉚	37%
아버지	⑤, ⑥, ⑦, ⑨, ⑪, ⑭, ⑯, ⑰, ⑱, ㉑, ㉒, ㉔, ㉔, ㉖, ㉗, ㉘, ㉙, ㉚, ㉛, ㉜	50%
부모	⑱, ㉑, ㉒	8%
노인	②, ⑱	5%

자녀의 입장에서조차 사회적 규범에 따라 ‘고려장’을 해야 하는 데 대한 반감과 심리적 불편함은 ‘부/모’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라는 특정한 대상보다는 ‘부모’라는 관계성이 우세하게 작용하면서, ‘고려장’ 제도 자체에 저항하려는 대응 담론을 구성하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⁴⁰⁾ 이에 따라 고려장의 폐지는 강조되었지만, 고려장의 위기에 처한 노인의 처지를 충분히 공론화할 담론적 가능성은 축소되었다. 말하자면, 해당 설화는 노인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토로하기보다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정 욕구를 강조하는 관점에서 구성되었다.

그런데 이 유형의 설화는 인간의 가치를 ‘쓸모’라는 효용 가치로 판단하려는 사회적 시선을 전제로 삼고 있었다. 이것이 이야기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고려장(노인에 대한 사회적 무시와 모욕)에 대한 모종의 대응 담론이 필요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야기에서 이는 버려야 할 존재로 간주되었던 노인의 ‘쓸모’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또는 누구나 늙음을 면할 수 없으므로 노인을 돌보아야 한다는 공생의 윤리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마련되었다.

전자에 해당하는 ‘문제형’과 ‘자립형’이 노인의 쓸모와 능력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노인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했다면, 후자에 해당하는 ‘지계형’은 ‘쓸모’라는 가치 기준을 넘어선 성찰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또한 ‘자애형’은 정서적 감응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네 가지 대응 방식에는 노인과 노화를 바라보는 사회 구성원의 공포와 불안이 반

40) 동시에 ‘노화’는 젠더 구분을 압도하는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 수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영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문제형’의 양적 비중이 크다는 것은 노인의 문화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경험, 지식 등 노인의 쓸모를 입증하는 방식이 우세하다는 공감대를 보여주었다.⁴¹⁾ 설화 구연자의 대부분이 노인층(60~97세, 64%)인 것을 고려하면, 이는 노인 자신이 사회에 쓸모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다는 인정 욕구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언제든지 사회적 가치를 입증해야만 사회적 존재로서의 문화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생존의 스트레스가 반영되어 있었다.

한편, ‘지계형’의 경우에는 노년층 부모가 자식에 대해 무조건적인 효를 기대하기보다는 자신들을 보편적인 인간 존재로 바라보고 존중해줄기를 기대하는 심리적 요구가 투영되어 있었다. 이 설화 유형은 장유유서나 효라는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누구나 늙는다는 생물학적 자연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공생과 돌봄의 문화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담고 있다.

4.2. 비극적 결말과 죽음 처리된 노인의 음성

해당 유형의 설화 중에는 예외적으로 노인의 비극적 죽음으로 귀결되는 텍스트가 발견된다. ‘문제형’에 속하는 2편의 이야기이다.

- ③ 아 들어 보닝께 틀림없는 말이거든. “그 양반을 모셔 오너라.” 이거여. 아 가구 보닝께 목을 매달어 죽었어. “아들 떠나구 나닝께 목을 매달어 죽었다.”구. 그 때서버텀 나라에서 가서 다시는 아주 산 분을 갖다가 고려장을 금지해 가지구서 그 그게 읊어졌다능 거여. 고려장.
(4-4:745)
- ⑩ 아 그러믄 그 늙이한테로 상을 주야 쓰졌어. [조사자:(웃으며) 그러쥬.] 그 상을 갖고 간께 죽어버렸단 말여. 그동안에 밥을 안 갖다 준

41) 물론 이에 대한 양적 평가는 『한국구비문학대계』라는 자료수집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편화할 수는 없다.

께. (6-4:541)

③에서는 노인이 아들에게 문제 해결의 답을 제안하고 나서 혼자 남은 사이에 자살한다. 자살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다만 이를 계기로 고려장이 폐지되었다는 결과가 구술되었다. 노인 자살의 이유로는 자신에 대한 인정과 효 때문에 국법을 어긴 아들이 처벌될 것이 두려워 자살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거나 아들이 부재한 틈을 타서 아들의 위반 행위(부모를 살려둔 점)가 발각될까 두려워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야기에서 이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구술자나 청중의 해석적 반응도 채록되지 않았다.

⑩에서는 70이 넘은 노모가 처음부터 아들이 국법을 어기고 고려장을 하지 않는 것을 염려했는데, 아들이 문제 해결을 하러 간 사이에 밥을 먹지 못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구술되었다. 노인은 국난을 방지할 정도의 문제해결력을 갖추고 있지만, 봉양을 받지 못하면 생명조차 보존할 수 없는 위기의 존재임을 보여준 것이다.

위의 두 사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노인의 수치와 자존감의 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동시에 신체적 쇠약으로 인해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노인의 위기를 보여주었다.

③④ 백 몇 살까지 사는데, 지금 우리가 중간에도 봤지만 노망을 헌다고 똥을 싸갖고 먹고 백장(벽장)에다 걸고 정신이 통 그래서 밥을 금방 쥐도 또 달라고 달라고 해. 근데 하도 입은 많고 가난하니 살 수가 없어. 그 분을 대접하다간…… (……) 업고 인자 산에 가서 생매장을 할라고, 옛날엔 생매장을 했다고…… (6-11:287)

① 뒤에다 지하실 모양으로 파고, 기다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문밖 출입을 못하는 거지. 아 세상 구경은 못하는 거야. (1-7:541)

③④에는 ‘노망’으로 통제력을 상실한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고통이 토로

되었다. ‘노망’이라는 전제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의 정서적 공감대로 활용된 경우이다. 이때 아들의 등에 업힌 노모는 아들이 돌아올 길을 찾아 주려고 나뭇잎으로 표시를 해두는 모정을 보였다. 아들은 이 마음에 감복하여 다시 어머니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실제로 어머니를 버리는 패륜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에는 노인이란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위기가 함축되었다는 점에서 ‘노망든 노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그에 대한 당사자의 공포가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①의 경우는 고려장을 회피하기 위해 아들이 노모를 지하에 모신 경우인데, 생물학적 생존은 가능하지만,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데 대한 안타까움이 표현되었다. 노인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고려장을 피하는 ‘생존’이 아니라, ‘생활’이라는 감각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 감각’에 대한 요구는 고려장을 피해 부모를 은둔시킨 ‘문제형’ 범주 전체에 관여되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여러 편의 이야기에서 버려지는 위기에 처한 노인이 ‘살아야 한다’는 데 대한 정서적 동의를 구하기 위해 ‘노인의 건재’를 부각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 ③ 몰래 밥을 각구 왔더라 그 말여. 각구 가닝께 정정헌 어머니닝께 정신 이 말짱허구 하닝께 (4-4:744)
- ⑦ 근디 아버지가 백 스무 살을 먹엇어도 장광허고 얘기도 잘 허고 잘 히 여. (5-7:38)
- ㉔ 이전에 고려장 한단 말 듣고 저그 아버지가 안중 피부가 멀쩡한데 아 췌매한 걸 꿩이를 쥐가(쥐어서) 산에 저그 아버지를 짊어지고 산에 갔어요. (7-4:255)

노인의 건강과 사회적 생존을 설득하기 위해 동원된 요소는 정신의 건강(③), 이야기하는 능력(⑦),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⑨), 건강한 피부(㉔)

등이다. ⑦에서 거론된 ‘이야기하는 능력’이란 사회성의 기초가 되는 소통 능력을 말하며, ⑨에서 구술된 화소는 아버지가 자신을 업고 가는 아들이 돌아갈 길을 찾아가도록 막대기를 잘라 표기를 해 주었다는 것으로, 부정(父情)을 대변한다. 동시에 이는 노인 부모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윤리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㉑의 경우에는 생물학적 연령은 노인이지만, 신체적으로는 젊음을 유지했음을 강조함으로써, 고려장의 부당함을 역설했다.

이 이야기들은 노인의 신체적 노쇠는 부정할 수 없지만, 정신이 건강하고 사회성이 있으며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윤리를 갖추었다면, 공생해야 한다는 암묵적 판단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해당 유형의 설화에서 주목할 것은, 이야기의 초점이 ‘고려장이 폐기된 유래’에 맞추어졌기 때문에 노인이 직접 자기 목소리를 내거나 이에 대한 자기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㉒ 가서 다시 파닝까 할머니가 다시…… 싫다구 마다구 하더란다. “나 싫다. 이왕 여기 들어 왔으니까 내 나이두 넘으 나이 먹었응개 나 그냥 말란다.”구. 항개, 손자가, “아니라.”구. 함서 할머니를 억구 와서 그 후에부텀은 고려시절이 고려장이 나왔는디 지금은 고려시절이 아니억구 인제 앞서루는 고려장이 읍엇단다. (4-4:345)

‘지계형’ 범주에 속하는 ㉒의 사례는 손자의 제안으로 어머니를 다시 모셔가려 하자, 노모가 귀가를 거부하는 내용이다. 노모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삶을 포기하려 하는데, 이는 버림받은 노인의 상처받은 자존감을 대변하는 동시에,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노인은 삶에 대한 의욕 자체를 상실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버림받은 노인은 자신을 버린 상대가 자녀이기 때문에 분노나 절망이 아니라 삶을 포기하는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해당 유형의 설화에서 노인은 고려장이라는 제도 또는 관습에 대한 어

떠한 의사 표현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노인에 대한 사회적 살해를 상징하는 고려장이라는 화소 자체를 ‘가상의 것’, 또는 ‘사라진 것’으로 보는 관점이 이미 전제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적 언급이 불필요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고려장은 없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필요 자체가 없었다.

둘째, 이 유형의 의미론적 핵심은 고려장이라는 형태로 노인을 방치하는 행위의 비윤리성이나 반인간성을 비판하려는데 있지 않다. 그보다는 노인의 생존 가치를 사회적으로 설득해 내는 방식을 통해 반인륜성을 반성하려는 데 강조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야기의 흐름은 노인을 버리는 것이 불쌍하다거나 비인간적이라는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사회적 공생의 논리를 강조함으로써 노인의 생존 가치를 설득하는 데로 모아졌다.

셋째, ‘문제형’의 경우, 노인은 직접적으로 고려장 제도를 비판하는 대신, ‘소 새끼’를 가리는 문제(여물을 주었을 때 먼저 달려드는 것이 새끼)를 통해 은유적으로 부모의 자애를 부각함으로써, 노인 살해라는 반생명적 제도를 비판했다.

해당 설화 유형은 전반적으로 고려장에 처한 노인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거나 자신을 버린 자식에 대해 배신감, 또는 고려장을 규범화한 국법(사회 규약)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야기의 초점은 노인 스스로 자신의 가치와 쓸모를 사회적으로 증명해 낼 기회를 포착하려는 데 맞추어져 있었다. 이는 노인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사회에 설득함으로써 존재 증명을 하고자 했던 자존감을 반영하고 있다. 동시에, 노인은 언제나 쓸모없는 존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포스럽게 인식하면서 가족과 사회(국가, 제도)가 ‘돌봄’과 ‘공생’에 대한 문화 논리를 구축하기를 기대하는 심리를 반영했다. 이때 노인의 ‘감정’이나 ‘심층적 의견’이 묵음 처리된 채 이야기가 전개된 것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가족)과 공생하기 위해 사회가 경청하고 준비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적 지점을 은유적으로 시사해 준다.

5. 결론

한국 구비설화의 구술자로서 노인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구비설화 속에는 노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거나 노인 문제를 다루는 이야기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는 이를 효행 설화나 가족 설화라는 범주 안에서 논의해 왔기 때문에, 노인의 문화적 정체성이나 노화에 대한 불안과 공포 등에 대한 성찰적 논의가 본격화될 수 없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노인의 사회적 정체성이나 노화의 문제는 단지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삶의 보편적 과정에서 경험하는 일반화된 문제로 사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노인의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고려장’이라는 다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화제가 어떻게 이야기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설화가 노인이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어떠한 합리적 근거와 문화적 동의를 체계화시켰는지에 주목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고려장이 폐지된 유래(436-11)’ 유형에 대한 문학적/문화적 분석을 시도했다.

해당 유형의 설화에서 고려장은 거부할 수 없는 사회적 규범으로 전제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규범은 노인이라는 특정 세대가 아니라, 인간 전체의 범주에 걸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잠재적 위험 요소로 상정되어 있었다. 해당 설화에는 노화에 대한 보편적 공포와 위기의식이 투영되어 있었으며, 친족살해를 주도하는 자녀 세대 또한 ‘반인륜적 사태’의 ‘공범자’이자 ‘희생양’이라는 이중적 위치를 보여주었다. 이때 친족에게 이끌려 고려장의 위기에 처한 노인은 이들이 일차적 생활 장인 가정 안에서 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유형의 설화는 가족이라는 혈연관계와 신뢰와 친밀성에 근거한 가정(생활공간)이 가장 위험할 수 있음을 환기함으로써 노인의 생물학적/사회적 생존에 대한 위기의식을 반영했다.

고려장의 폐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상상된 가장 유력한 요인은 노인

의 쓸모를 사회적으로 입증하는 ‘문제형’ 범주로 유형화되었다. 이와 달리 ‘지계형’은 노화의 문제를 타자로서가 아니라 자기문제로서 성찰함으로써 ‘공생의 논리’를 강조했다. ‘자애형’은 부모의 자애를 경험한 자녀가 스스로 불효를 반성하는 구조를 취했으며, ‘자립형’은 노인 스스로 사회적 외면과 무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경제적 자립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보여주었다. 네 가지 하위 유형은 노인의 존재 증명과 문화적 위치 찾기에 관한 다기한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노인과의 공생적 상상력을 모색했다. 동시에 노화를 인간 보편의 문제로 상정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모색을 추구했다. 해당 유형의 설화들은 자녀의 효도라는 윤리적이고 이념적인 차원을 강조하기보다는 노인(가족)과 공생해야 하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지점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주었다.

해당 설화 유형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이에 대한 문제적 지점이 드러났으며, 이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노인의 위기와 노화의 공포를 인간 보편의 문제로 사유하려는 성찰적 모색이 발견되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살핀 분석적 작업이 단지 이야기된 상상력의 구조를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현대인들이 노인과의 ‘공생의 문화규약’을 이해하고 준비하며 대처하는, 인문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참고문헌

- 강진옥, 『효자호랑이 설화에 나타나는 효 관념』, 『민속연구』 1집,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1991, 81-101쪽.
- 김민한, 『高麗葬說話의 虛構性에 關한 研究』, 『한국사상과 문화』 5집, 한국사상문화학회, 1999, 103-145쪽.
- 김양진, 『한국고대설화 속의 노인 이미지 특성 연구』, 『새얼어문논집』 17호, 새얼어문학회, 2005, 197-227쪽.
- 서태수, 『자녀희생효 설화를 통해 본 효행주체의 의식』, 『청람어문교육』 5집, 청람어문교육학회, 1991, 240-271쪽.
- 손진태, 『한국민족설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79,
- 지교헌, 『한민족의 정신사적 기초』, 정신문화연구원, 1988,
- 이수자, 『高麗葬설화의 형성과 의미』, 『국어국문학』 98집, 국어국문학회, 1987, 131-162쪽.
- 이우식, 『고려장 설화에 대하여』, 『얼과 문화』 18호, 우리문화연구원, 1990,
- 이인경, 『한국구비문학대계 소재 설화 해제』, 민속원, 2008, 1-717쪽.
- 이정호, 『인도전래동화』 2, 웅진출판주식회사, 1986, 1-159쪽,
- 정경민, 『자녀희생효 설화에 나타난 ‘효’와 ‘모성’의 문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4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2, 5-42쪽.
- 조희웅, 『설화학 강요』, 새문사, 1989, 1-231쪽.
- 최기숙, 『‘효/불효’ 설화에 나타난 가족 관계의 문학적 상상과 문화 문법에 관한 비판적 독해 : ‘불효를 이용해 효도하게 하기(431-1)’ 유형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31호, 2010, 115-156쪽.
- Barthes, Roland, 『신화론』, 정현 역, 현대미학사, 1995, 1-246쪽.
- Minois, Georges, 『노년의 역사』, 박규현 · 김소라 옮김, 아모르문디, 2010, 1-560쪽.
- Propp, V. Y, 『민담의 역사적 기원』, 최애리 옮김, 문학과 지성사, 1990, 1-462쪽.

Thane, Pat 편, 『노년의 역사』, 안병직 옮김, 글항아리, 2012, 1-504쪽.

上野千鶴子(우에노 치즈코), 『プライバシーの解體』, 『生き延びるために思想-ジェンダー平等の罫』. 岩波書店, 2006, pp.1-416.

Abstract**Fear on Aging and the Imagination toward Symbiotic Society**

-Focusing on Analysis on the Folklore Type No. 436-11. 'The Motivation of Abolishing

Goryeojang'-

Choe, Keysook

This paper analyzed a type of Korean folk tales, 'The Motivation of Abolishing *Goryeojang* (an imagined custom which is dropped out the aged person in the mountain to be died)', a folklore type No. 436-11 collected in *Hankuk Gubimunhak Daegye*, focusing on the fear of the aged's and their hopeful imagination toward the symbiotic society.; How the story was made a reasonable and persuasive clue for symbiotic life with the aged? Why the society members should take care of the aged?

In pre-researches, this type folk tales were divided into two sub-categories as like 'quiz-type' and 'jige(a Korean A-frame carrier)-type' focusing on the topic of filial duty. However this research newly divided these into four sub-categories including two types like 'affection-type' which was emphasized the changeless maternity regardless of undutiful child and 'self-help type' which was dealt with the social independence of the aged parents focusing on the reason of the social survival of aged persons and on their social demand for caring and its cultural/literary meanings.

First, the types of 'quiz' and 'self-help' were reflected on their social need to get a reasonable social membership through proving

their social value and potentiality. Second, the type of 'jige' pursued the reflective orientation which was surpassing the concept of usefulness. Third, the type of 'affection' showed the affective influence to the child-generation. All these types reflected anxiety and fear for aging of all social members regardless of age. However the fact that the biggest group was the 'quiz-type' showed that the aged generation desired to prove their social value through getting recognition about their wisdom, experience and knowledge, etc. Because most narrators of the folklore were aged people (over 64% of them were 60~90 years of age), it can be possible to interpret that the aged wish to get a social membership in their community through being recognized as useful and affective persons. But the behind of these dimensions, this type stories were reflected their instable social position and their psychological stress because they should prove their value of existence anytime.

The type of 'jige' was reflected their psychological demand, as it were, they desired to be recognized as general respectable human-beings from the society rather than regarded as only aged persons who should be cared as the weak persons.

Finally this research suggested the ground of social discourse; what is the reasonable perspective and practical attitude of the contemporary people who are living in this (super-aged) aging society toward the 'aging'.

Key words : *Goryeojang*, The aged, aging, folk tales, fear, wisdom, caring, symbiosis

- 본 논문은 4월 30일에 접수되어 5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5월 28일에 게재 확정되었음.